

1998년도 시멘트 수급동향

김 재 열 (한국양회공업협회 기획부 관리과 대리)

1. '98년 국내 경제동향

IMF속에 '98년을 맞이한 국내경제는 당초에 짐작한 수준보다 훨씬 더 심한 몸살을 겪었다. 1년만 고생하면 IMF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정부의 안이함 속에 매년 GDP성장 전망은 뒷걸음질 쳤으며 따라서 당초 IMF와 합의한 3% 성장과는 너무 거리가 먼 -6%대의 성장이 예상된다.

국내경기는 고환율과 고금리로 소비·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내수부진을 부추겼다. 또한 기업은 이러한 경제여건 속에서 연쇄도산과 구조조정을 겪게되어 대량실업을 야기하였다.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구조조정 및 자금난 심화로 인한 기업의 연쇄도산과 불투명한 경기전망 등으로 상반기에만 46.7%의 감소를 보인 설비투자는 기업의 구조조정 및 내수와 수출의 부진이 지속되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에는 더 큰 폭인 52.5%의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연간으로는 49.5% 감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최종소비지출 역시 급격한 실업증가와 실질소득 감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공공부문 역시 세수부족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함에 따라 13.0%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5% 정도 상승했던 소비자물가는 금년은

7.8% 상승에 머물 것으로 보여지며, 실업율은 연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연쇄부도와 구조조정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7.2% 정도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진다.

2. '98년 국내 건설동향

IMF 관리체제이후 건설경기가 급속하게 위축되면서 수주물량이 격감하고 특히 업무시설 등 비주거용 건축공사 물량이 전년보다 70% 이상 급감하고 아파트수요가 실종되면서 주택건설업체의 연쇄부도로 이어졌다. 민간건설부문의 유례없는 침체속에 정부가 매달 3~4건의 건설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등 건설경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실질적인 부양책 마련이 늦어져 심각한 수준에 빠진 건설경기 회복에는 다소 부족하였다고 하겠다.

이는 공공기관의 투자예산이 건축 운용되면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취한 대규모 SOC투자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민간부문의 투자심리도 전혀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결국 고금리에 따른 자금난으로 건설업체의 도산이 급증하고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크게 위축되어 건설투자는 상반기에만 10.7% 감소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16.4% 감소하여 연간으로는 13.8% 감소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1>)

건설선행지표인 '98년 건축허가동향을 보면 연초에 주거용의 강세로 상업용과 공업용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적은 감소를 보이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하였다.

그러나 3월부터는 국내경기 침체 심화로 전부문에 걸쳐 감소폭이 증가되었다. 금년의 건축허가 면적의 감소추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1월 -16.8%, 2월 -7.3%, 3월 -38.6%, 4월 -58.1%, 5월 -65.2%, 6월 -54.3%, 7월 -63.5%, 8월 -70.1%, 9월의 -57.6%에 이어 10월은 전년동월대비 79.9% 감소하는 등 매월 최저치를 경신하여 1~10월 누계로 볼 경우에도 주거용이 -48.4%, 상업용과 공업용은 기업의 부도 및 자금난으로 설비투자가 급감함에 따라 훨씬 더 심각한 -66.4%와 -70.6%를 기록했고 문교사회 및 기타 건축허가면적도 39.3% 감소하여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반증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동행지표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건설수주동향에 따르면 '98년 10월까지의 국내건설공사 총

<표-1> '98년 건축허가실적

(단위 : 천m², %)

| 구 분 | | 건축허가실적(1~10월) | | | |
|-------------|---------|---------------|--------|--------|------|
| | | 96년 | 97년 | 98년 | 97대비 |
| 용 도 별 | 주 거 용 | 48,641 | 48,054 | 24,816 | 51.6 |
| | 상 업 용 | 22,497 | 22,828 | 7,678 | 33.6 |
| | 공 업 용 | 10,377 | 7,759 | 2,285 | 29.4 |
| | 문 교 사 회 | 5,055 | 5,422 | 3,402 | 62.8 |
| | 기 타 | 6,170 | 5,731 | 3,369 | 58.8 |
| 구 조 별 | 철 골 조 | 82,475 | 81,964 | 38,123 | 46.5 |
| | 조 직 조 | 6,501 | 4,443 | 1,623 | 36.5 |
| | 목 조 | 105 | 146 | 97 | 66.3 |
| | 기 타 | 3,660 | 3,241 | 1,707 | 52.7 |
| 계 | | 92,741 | 89,794 | 41,550 | 46.3 |

※ 자료 : 건설교통부

<표-2> '98년 건설수주실적

(단위 : 억원, %)

| 구 분 | | 건설수주실적(1~10월) | | |
|-----------------------|---------|---------------|---------|-------|
| | | 97년 | 98년 | 98대비 |
| 발 주 자 별 | 공 공 | 179,861 | 162,550 | 90.4 |
| | 민 간 | 283,273 | 106,661 | 37.7 |
| | 제 조 업 | 49,400 | 11,010 | 22.3 |
| | 비 제 조 업 | 233,870 | 95,651 | 40.9 |
| | 국내외국기관 | 707 | 959 | 135.6 |
| 공 사 종 류 별 | 건 축 | 291,081 | 121,457 | 41.7 |
| | 주 택 | 167,540 | 80,525 | 48.1 |
| | 비 주 택 | 123,541 | 40,932 | 33.1 |
| | 토 목 | 197,745 | 156,129 | 79.0 |
| | 전 문 공 사 | 2,545 | 803 | 31.6 |
| 계 | | 491,370 | 278,389 | 56.7 |

※ 자료 : 통계청

※ 주 : 건설교통부 장관 면허업체중 도급 상위 250개 업체 실적

수주액은 27조 8,38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3% 감소하였으며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이 16조 2,550억원으로 전년대비 9.6% 감소한데 비해 민간부문은 10조 6,661억원으로 전년대비 62.3% 감소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가 15조 6,129억원으로 전년대비 21.0% 감소하였고 건축공사가 12조 1,457억원으로 전년대비 58.3%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예년의 민간·건축 강세, 공공·토목 약세의 구도가 금년에는 정반대인 공공·토목 강세, 민간·건축 약세로 반전되어 금년의 어려운 건설경기를 보여주고 있다. (<표-2>)

3. 시멘트 수급동향

가. 내 수

시멘트 수요는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건설경기의 등락과 함께 시멘트 수요도 그

〈표-3〉 '98 시멘트 수급실적

(단위 : 천톤, %)

| 구 분 | 수 | | | 공 | | | 재 고 |
|--------|---------------|-------|--------|---------------|-----|--------|-------|
| | 내 수 | 수 출 | 계 | 생 산 | 수 입 | 계 | |
| 1/4 분기 | 8,864 (76.9) | 109 | 8,973 | 9,230 (78.3) | 14 | 9,244 | 1,487 |
| 2/4 분기 | 12,615 (71.8) | 230 | 12,845 | 13,237 (80.6) | 71 | 13,308 | 1,950 |
| 상 반 기 | 21,479 (73.8) | 339 | 21,818 | 22,467 (79.6) | 85 | 22,552 | |
| 3/4 분기 | 11,332 (72.6) | 380 | 11,712 | 11,423 (74.8) | 43 | 11,466 | 1,695 |
| 4/4 분기 | 11,589 (68.0) | 533 | 12,122 | 12,010 (73.6) | 54 | 12,064 | 1,637 |
| 하 반 기 | 22,921 (70.2) | 913 | 23,834 | 23,433 (74.2) | 97 | 23,530 | |
| 합 계 | 44,400 (71.9) | 1,252 | 45,652 | 45,900 (76.8) | 182 | 46,082 | |

※ 주 : 12월은 추정치, 크랑카 수출 1,584천톤 별도
()는 전년동기대비

〈표-4〉 최근 10년간(89년~98년) 시멘트 내수 계절지수 및 출하비

| 구 분 | 1월 | 2월 | 3월 | 1/4분기 | 4월 | 5월 | 6월 | 2/4분기 | 상반기 | 7월 | 8월 | 9월 | 3/4분기 | 10월 | 11월 | 12월 | 4/4분기 | 하반기 |
|------|------|------|-------|-------|-------|-------|-------|-------|------|------|-------|-------|-------|-------|-------|------|-------|-------|
| 계절지수 | 60.5 | 60.8 | 104.7 | 75.4 | 113.3 | 113.8 | 111.6 | 112.9 | 94.1 | 99.5 | 102.5 | 103.1 | 101.7 | 119.5 | 111.1 | 99.4 | 110.0 | 105.9 |
| 출하비 | 5.0 | 5.1 | 8.7 | 18.8 | 9.4 | 9.5 | 9.3 | 28.2 | 47.1 | 8.3 | 8.5 | 8.6 | 25.4 | 10.0 | 9.3 | 8.3 | 27.5 | 52.9 |

움직임을 같이 한다.

금년에는 IMF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한 SOC 등 주요 국책사업의 투자축소 및 민간주택건설경기 실종으로 인해 건설경기는 사상 유례없는 부진을 보였다.

따라서 금년의 시멘트 수요 또한 '80년 오일쇼크로 감소한 -16.8%를 크게 상회하는 28.1%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23.1% 감소, 2/4분기 28.2% 감소, 3/4분기 27.4% 감소, 4/4분기 32.0% 감소로 특히 4/4분기의 경우는 전년 4/4분기가 1.3% 증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가을철의 연중최대 성수기가 실종됨에 따라 30%가 넘는 감소를 보였다. 이는 10월의 내수를 살펴볼 경우 확연히 드러나는데 전년 10월이 월단위 내수출하 실적으로는 업계 사상 최대인 6,710천톤을 출하한데 반하여 금년은 추석 연휴와 내수부진으로

3,607천톤에 그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46.6% 감소하여 연간 내수 평균치인 3,700천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심한 부진을 보여주었다.

(1) 계절별 출하실적

시멘트는 계절에 따라 소비가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주요자재로 통상적인 소비재 상품과는 달리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온의 고저, 또는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수요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이 구분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봄과 가을이 성수기가 되고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은 이른바 시멘트수요의 비수기가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건설공법의 발달로 점차 성·비수기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표-4〉)

최근 10년간 출하의 계절지수를 살펴보면, 연간

평균치를 100으로 볼 때 1월과 2월은 60선에, 7월과 12월은 90선의 상위부분에 위치하여 월별 출하정도를 짐작할 수있다. '98년의 분기별 출하구성비는 1/4분기 18.8%, 2/4분기 28.2%, 3/4분기 25.4%, 4/4분기 27.5%로 2/4분기가 피크를 기록하였고, 반기별로는 상반기 46.9%, 하반기 53.1%로 하반기가 다소 우위를 보여준다.

(2) 수요별·품종별 출하실적

내수출하를 수요부문별로 보면 10월까지 민수 96.6%, 관수 3.4%로 각각 35,162천톤, 1,256천톤으로 '97년의 민수 97.7%, 관수 2.3%와 비교하면 민수가 0.7% 포인트 감소한 반면 관수는 0.7% 포인트 증가하였다. '89년에 처음 민수 비중이 90%를 상회한 이래 '92년까지 소폭의 감소를 보이다가 다시 '93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1% 포인트가 넘는 증가를 보여왔다. 그러나 금년은 전년에 비해 민수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민간건설 경기의 극심한 부진속에 공공부문이 명맥을 유지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품종별 출하실적을 보면 벌크시멘트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금년의 경우 벌크출하는 수입시멘트를 포함하여 10월까지 31,803천톤으로 87.3%를 차지하여 '97년의 86.4%에 비하여 0.9% 포인트 증가하였다. 벌크화율 증가 원인은 건축물이 대형·고층화되면서 사용이 신속, 편리한 잇점과 소규모의 주택건설에도 널리 사용되는 등 레미콘의 사용이 일반화되는 시멘트 소비양태로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이러한 벌크화의 증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 생 산

크링카와 시멘트 생산은 각각 42,000천톤, 45,900천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보다 각각 -22.4

%, -23.2%의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크링카 생산을 분기별로 보면 1/4분기가 8,962천톤으로 27.0% 감소, 2/4분기 12,084천톤으로 9.6% 감소, 3/4분기는 10,111천톤으로 27.5% 감소를, 4/4분기는 10,842천톤으로 25.4% 감소할 것으로 보여 2/4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보다 25.0%가 넘는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97년 11월과 금년 4월에 각각 완공된 한라시멘트(주)와 성신양회공업(주)의 키톤으로 생산능력은 전년에 비하여 크게 늘어난 데 비하여 수요는 대폭 감소하여 연중 동절기 수준의 조업단축, 보수 및 점검이 계속되었으며, 특히 홍성산업은 '97년 12월부터 전면 휴업에 들어가 생산을 중단하였다.

시멘트 또한 분기별 생산실적을 전년과 비교할 때 1/4분기 21.7% 감소, 2/4분기 19.4% 감소, 3/4분기 25.2% 감소, 4/4분기 26.4% 감소하는 등 크링카와 마찬가지로 2/4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대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11월까지의 시멘트생산을 업체별로 보면 동양 -28.8%, 쌍용 -25.1%, 한일-30.5%, 현대 -28.8%, 아세아 -26.4%, 성신 -16.2%, 고려 -20.3%, 한라 -6.5%, 한국교토 -26.6%를 보였으나 대한은 12.7% 증가로 대한시멘트를 제외한 전업체가 '97년 동기간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감소폭이 낮게 나타난 성신과 한라의 경우는 시멘트 생산용 밀의 증설과 이에 따른 추가생산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 수출입

시멘트는 내수를 위주한 산업이며 중량물인 제품의 특성상 물류비의 비중이 높아 수출입은 단기적인 수급균형을 이루기 위해 근접국가간에 발생되어왔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 IMF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모든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건설부문의

불황이 심각하게 나타나 주요건설자재의 하나인 시멘트 또한 극심한 내수물량의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내수부진을 타개키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각 업계에서는 수출증대에 주력하여 물량면으로는 전년 대비 139.3%나 증가한 기록을 나타내었으며 수출시장 또한 기존의 수출시장 이외에 미주, 아프리카, 유럽 등 신(新)수출시장 개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주시장인 동남아 및 일본 등의 내수침체 속에 일부 동남아국가에서의 수출가격 덩핑 횡행으로 가격이 폭락, 채산성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신시장 개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98년 총수출실적은 2,836천톤으로 전년대비 139.3%나 증가하여 '95, '96년 2년 연속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품종별로 살펴보면 크링카 1,548천톤, 시멘트 1,288천톤으로 각각 전년대비 175.4%, 106.7%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출물량 중 크링카가 차지하는 비중도 54.6%로 전년의 47.4%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처럼 수출이 증가한 주 요인으로 각 업계의 신시장 개척의 노력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으며 수출대상국가별로 살펴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전년에 수출대상국가는 총 11개국이었으며 지역 또한 동남아지역에 편중되었으나 금년의 경우 총 22개국으로 수출대상국가들이 2배 이상 증가했을 뿐만아니라 지역별로 살펴보아도 포르투갈, 이집트, 에콰도르 등 유럽, 아프리카, 남미대륙에 대한 원거리수출도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크링카 수출을 포함한 사별 수출실적은 동양 853천톤, 쌍용 1,403천톤, 한일 20천톤, 성신 126천톤, 한라 435천톤을 기록하여 수출사(社) 모두 전년대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내륙사가 잉여물량을 연안사를 통해 수출함으로써 가동율을 제고시키는 한편 연안사의 내륙시장에 대한 시멘트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시멘트 수급에 크게 기여하는 출하형태인 교환수출의 경우 쌍용과 성신이 109천톤을 수출하여 전년의 15천톤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시멘트수출은 포장상태보다는 선적과 하역이 기계장치에 의해 발생되고 대량수송이 용이한 벌크상태의 수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금년에도 포장상태로 16천톤이 수출되었으며 나머지는 벌크상태로 수출되었다.

한편,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해까지 많은 물량의 시멘트 수입이 이루어졌으나 금년의 경우 극심한 내수의 침체로 시멘트업계에서의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일·대우시멘트(주)에서 들여온 182천톤이 유일하며 원산지별로 보면 전량이 중국에서 수입되었다.

라. 재 고

대규모 장치산업인 시멘트산업은 생산능력은 일정한 반면 수요는 계절과 건설경기에 따른 변동폭이 심하여 수요의 수준에 따라 재고상태가 변화된다. 따라서 항상 적정재고를 보유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금년의 재고상태를 보면 전년도 말의 이월재고가 1,224천톤, '98년 공급이 46,082천톤(수입 182천톤 포함), 수요가 45,652천톤(수출 1,252천톤 포함)으로 예상되어 연말재고는 1,637천톤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금년의 경우는 내수가 전년대비 28.1% 감소함에 따라 매년 공급 부족에 대한 수입의 필요성이 없어져 전년 수입계약 체결에 의한 소량의 수입에 그쳤다.

따라서 금년은 공급능력을 크게 밀도는 수요로 인

해 월평균 재고는 1,600천톤을 웃돌아 90년대들어 작년까지 지속된 만성적인 공급애로 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크링카 경우는 시멘트 재고보다 정도가 더 심하여 상반기 내내 2,000천톤을 상회하는 재고로 인해 저장시설의 한계에 이르러 연중 조업단축과 함께 생산 시설에 대한 보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유통중계기지의 포장시멘트를 취급하는 소비지 재고를 서울, 경인의 36개 공장의 중앙과 나머지 지역의 101개 공장의 지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11월말 기준 소비지 재고는 중앙 38천톤, 지방 48천톤을 합쳐 86천톤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9.4%의 증가로 돌아서 1~10월까지 중앙과 지방의 구분 없이 전년 동월보다 감소를 보이던 추세에서 벗어났다. 10월까지의 감소추세는 본·분공장의 크링카와 시멘트 재고가 내수부진으로 연중 동절기 수준을 유지하여 대폭적인 조업단축을 하였던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이러한 전년동월대비 감소 원인은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포장시멘트 역시 비축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지로의 시멘트 이송을 줄였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 수 송

생산 및 내수의 증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송도 올해는 부진을 면치못해 최근 5년간 연평균 4.7%대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10월까지의 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의 50,013천톤보다 무려 23.4%가 감소한 38,531천톤에 그쳤다.

올해의 수송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수송수단 선택에 있어 수송효율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는 수송수단별 수송실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공로가 수송실적 평균 감소치를 훨씬 밑도는 35.5%나 감소한 반면 해송과 철송은 11.2%, 21.6%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으며 전년도 수송분담비중에서 공로수송이 차지하는 점유비가 가장 컸었던 것을 상기할 때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수단별 수송분담비가 '97년 공로(36.7%), 선박(31.8%), 철도(31.5%) 순에서 '98년에는 선박(36.8%), 철도(32.2%), 공로(31.0%) 순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수요의 감소가 소비지 유통중계기지의 재고로 이어져 수송수단 선택 기준이 소비지 수요처로의 신속한 수송보다는 비용절감에 우선을 두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공로수송을 줄이는 대신 대량 일괄수송을 통한 단위당 운송비면에서 저렴한 선박과 철도를 공로보다 선호했다고 볼 수 있다.

해송 증가의 또 다른 이유는 내수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연안사들이 시멘트 관로를 해외로 돌려 수출물량이 전년 같은 기간(1월~10월)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245천톤을 수출한 것이다.

한편, 시멘트 수요의 장기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90년대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수송수단 및 유통기지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